



3면  
"틀 깨 인플 필요"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음 9월 3일) 제28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매일

## “메가시티 전북 고립 위기”

나인권 도의원, “광역도시권으로 전략 수정해야”  
송하진 도지사 “국가균형발전, 시대적 사명 됐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도별 공동 대응 계획 밝혀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독자 권역을 고집하는 전북도가 외판 섬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전략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나인권 도의원(김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호남 프레임에 갇혀 주요 국가사업과 예산에서 광주·전남에 홀대를 받았던 전북이 초광역권 메가시티에서조차 비켜남으로써 차별과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전북도에 메가시티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체들이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가시



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전북만 뒤로 빠져있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추진력을 받으면 서 충청권 4개 시도와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다른 광역자치체들도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범부처 TF를 구성해 메가시티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이날, 나인권 의원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광역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됐고,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 사업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라면서 메가시티와 광역도시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나 의원은 “GDP와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2% 수준에 그치고 1인당 소득 역시 전국 최하위권으로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된 전북에 터닝포인트가 될 히든카드는 바로 광역도시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나인권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가 미완성으로 끝날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후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라면서, 이를 관찰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추진 의지를 도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사명 됐다”라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시·도별 공동 대응 계획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답변하는 송 지사 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피해 심각”

민주 김윤덕 의원, LH 국감서  
LH 사내대학 개선도 요구



주고받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가능했다”면서 “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주업체의 고충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윤덕 의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직결돼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을 올리고, 여러 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서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줘야 하고, 무엇보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챙겨주시고, 익산시 지자체와 협의해 내일이라도 당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

익산에 지난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2,000여㎡(약 1만 8,755평, 인접 근린공원 포함)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7일 LH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봤다”면서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광장히 컸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LH 김현준 사장에게 “LH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연약지반 현황이나 법면 상태, 석축·옹벽 발생 여부 등 토지 현황과 입지 여건을 매수인(기업)이 직접 확인하고,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중개인에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건축물의 현황과 입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11일 대대공휴일 관계로  
신문은 12일 발행합니다

## 전주비빔밥축제, 새로운 맛의 축제로 재탄생

내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위크제’ 형식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가 4주간의 ‘위크제’ 형식의 새로운 맛의 축제로 재탄생된다.  
전주시는 2021 전주비빔밥축제를 9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일요일 전주한옥마을 향교 일대에서 소규모 사전예약 및 온라인형식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월드비빔위크(World Bibim Week)라는 부제와 함께 류재현 총감독 체제로 처음 열리는 올해 비빔밥축제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아닌, ‘비빔’을 뜻하는 어울림에 의미를 두고 무엇보다 ‘맛’에 집중하는 음식축제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비빔밥축제는 4주간 ▲비빔위크(커플의 날) ▲비빔인위크(아내의 날) ▲단백질위크(남편의 날) ▲월드위크(가족의 날) 등 매주 다른 주

제로, Day 프로그램과 특별·상시프로그램, 특별전시 등으로 꾸며진다.  
커플의 날로 운영되는 첫째 주 비빔위크에서는 인생맛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커플이 인생 뷰(view) 맛집에 초대돼 요리사의 코스를 누릴 수 있다.  
아내의 날로 지정된 둘째 주 비빔인위크의 경우 아내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고, 다이어트 걱정 없이 맘껏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이 주로 소개된다. ‘건강맛찬’ 프로

그램에서는 채식 경험해보고 싶거나 건강한 음식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채식 음식과 지역식재료로 만든 포케(날생선 샐러드), 각양각색 샐러드 등이 선을 보인다. 특히 사찰음식 명장 ‘내안스님’의 미식예술 미담명상, 미식채식으로 구성된다.  
남편의 날로 운영되는 셋째 주 단백질위크에서는 육즙 가득한 고기의 진한 맛을 입맛에 맞춰 골라 먹을 수 있는 ‘고기맛찬’이 준비된다.  
마지막 넷째 주에는 동서양의 맛과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월드위크로 진행된다. 월드위크에서는 미식 할로윈과 부모님과 식사를 등의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올해 비빔밥축제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주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맛콘서트&체험 ▲음식을 맛보며 공연을 즐기는 ‘맛콘’ ▲색다른 음식과 함께하는 무성무선영화관인 ‘미식영화관’ ▲향교길 빈 점포를 활용한 특별전시 등도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맛있다!

#장수물

오! 아름다운 자여!

# 장수오미자

#다섯가지맛

#오미자와인

#오미자주

장수군청

www.장수물.com    장수물 MALL    tel.063)350-5448